

# “이런 시국 웬 송년회?”... 연말 경기 ‘먹구름’

### 춧불정국·김영란법·美 대선 여파 광주 요식업계 예약 ‘뚝’ aT, 3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 67.5...4분기도 악화 전망

“김영란법 탓에 식당 계산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정국도 어수선한데 송년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전국에서 대규모 춧불집회가 계속되면서 광주지역 연말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

변화를 열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맘 놓고 술을 마실 수 없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탓에 학교 동문들의 송년회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에 올 하반기 외식경기에도 덩달아 침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서 주식 시장마저 얼어붙어 덩달아 연말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광주지역 호텔, 식당 등지에 따르면 춧불정국, 미대선, 김영란법 악재 겹쳐 연말 송년회 예약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흔히 연말 짝은 송년회 탓에 이틀 난 식당과 호텔 연회장 등은 11월 말까 대 부분 예약이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아예 예약 문의조차도 없는 곳이 많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또 연말에는 식당을 잡지 못해 서둘러 11월 말까 송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늦어지고 있다. 실제 직장인들의 단골 송년회 장소였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 A일식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이날 현재 단 한 건의 예약도 받지 못했다. 학교 동문의 송년회가 잦았던 인근의 고기 집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 업주는 “김영란법 탓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정국마저 이렇게 돼 더욱 예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시끄러운 나라 탓’에 연말 특수나 사라져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게 됐다. 한정식집과 해산물 전문점, 행사·이벤트용 출장음식서비스업종이 청탁금지법과 춧불 정국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경기가 흐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발표한 ‘201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7.51p로 2분기(70.55p)보다 더 침체했고, 4분기에도 경기가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 자료의 업종별로는 한식음식점(64.46p)과 치킨전문점(66.0p) 등이 3분기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업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4분기에 이 수치보다 더욱 악화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한정식 전문점과 해산물 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낸 미래경기 지수가 각각 62.33p, 63.21p로 전망됐다.

통상 연말에 행사·이벤트가 몰려 수요가 늘어난다. 출장음식서비스업(63.71p) 역시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7.95 (+4.48)
- ↑ 금리 (국고채 3년) 1.78% (+0.04)
- ↓ 코스닥 600.29 (-10.45)
- ↑ 환율 (USD) 1176.20원 (+0.10)

## 자동차 보험료 다시 ‘들썉’

### 악사 이어 흥국 1.9% 인상...삼성·KB 담보별 조정

연말에 들어서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다.

흥국화재는 기본 담보에 대해 개인용은 14.0%, 업무용은 8.3% 인상하는 대신 차량단독·대물확대·자동차상해 등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잠잠하던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재개되는 양상이다.

흥국화재에 앞서서는 악사손해보험이 지난 10월 29일 개인용 차량에 대해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대해 평균 4.7% 각각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전체 평균 보험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는 담보별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기본 담보의 보험료를 3.0% 인상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대신에 자기차량 손해(자차)담보의 보험료를 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0%로 유지시켰다.

삼성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지난 17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보험료를 8.0% 인상하고, 자차담보 보험료는 10.6% 인하함으로써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0%로 맞추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나 KB손보처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 자차담보에 주로 가입하는 우량 고객은 보험료를 할인받지만,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 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손보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달린다 내일부터 광주~서울 하루 20회



버스, 더 안락하게 ~ 25일 운행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시승행사가 23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버스에 장착된 기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우등 고속버스보다 넓고 안락한 좌석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업계는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서울~광주(1일 왕복 20회), 서울~부산(1일 왕복 12회) 노선에서 오는 25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안전성 측면에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S)과 차선 이탈 경보장치(LDWS) 등 최첨단 안전장치 탑재하고 비상장치 8개를 추가 비치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의 승무원을 배치했다.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광주~서울 노선은 코버스(<http://www.kobus.co.kr/>), 서울~광주 노선은 이지티켓(<http://www.hticket.c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매 또는 예약이 가능하며 서울호남터미널과 광주터미널 대표소에서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서울~광주 노선 요금은 3만3900원으로 우등 고속버스 요금 2만6100원 보다 7800원이 높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개시를 기념해 요일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 내달부터 1500만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다음 달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다른 유사한 정책금융상품과의 균형을 맞춰 이처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서민층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 (저축은행은 9.05%·10월 기준)의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층에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한도 2500

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도 1500만원) 대비 생계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한도 확대는 신용등급 400만~1000만원이었던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을 성실히 갚는 사

람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실히 갚는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감면율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이다.

개선된 제도는 1년 이상 감면율을 동일하지만,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로 감면율을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햇살론 신청 때 유사한 서류를 통합해 서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기술보증기금, 조선대서 청년 창업교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제6회 청년·기술창업교실’을 오는 12월6~7일까지 조선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번째 열리는 창업교실은 광주·전남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실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창업자는 내달 4일까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http://www.kibo.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제

조, 정보통신(ICT), 신재생에너지,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을 준비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이다. 선정자는 12월5일 개별통보된다. 이번 강좌는 1박2일간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은 ▲정부지원사업설명 ▲마케팅 전략 및 사례 ▲스토리텔링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리얼리티 체크 ▲비즈니스 모델 생성 등으로 예비창업자의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광주상의-KB기업은행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의원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과 ‘중소 회원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상의는 IBK기업은행에 기금 30억원을 위탁하고 IBK기업은행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일시적

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고 3억원 한도의 대출과 0.85%+α의 이자보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재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에서 패턴을 선택하세요!

5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시로를 타고 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전시

실제시공 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  
6년 무상 A/S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자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속자금대출!!  
합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 223-5506

구도청!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받지, 보호한도는 본 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으로 대상 금융상품이 현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